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39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經濟新聞

※ 대상 기간 : 2025.05.01~2025.05.07

①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②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6
▪ 중국	
– 중국 인민은행, 시장 안정화 위해 3대류 10개 조치 발표	6
– 중국 25개 도시 주택용지 가격 사상 최고 기록	6
– 닝샤, 인촨 종합보세구 고수준 개방 지원책 마련	7
– 4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 51.1%, 서부 지역 회복 두드러져	7
– 제28차 ASEAN+3 재무·중앙은행 총회 개최, 중국 400만 달러 추가 기부	8
– 중국 산업연구원, 2025년 중국 컴퓨팅 단지 경쟁력 보고서 발표	8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기업 내수 시장 진출 지원 가속화	9
– 중국 민간 우주기업, 액체메탄 엔진 100기 생산 돌파, 재사용 로켓 기술 발전	9
– 중국 에너지 산업, 저탄소 발전 지속 추진, 신에너지 비중 확대	10
– 1분기 중국 소프트웨어 업계 매출 10.6% 성장, 수출도 증가세 전환	11
▪ 일본	
– 일본인 국내 관광지 기피 현상 심화, 교토 등지서 두드러져	11
– 오버투어리즘 대응 본격화, 일본 관광지의 새로운 도전	12
– 간사이 전력, 재생에너지 저장용 초대형 배터리 설립	12
– 도쿄 가스, 하수 슬러지 활용 e-메탄 실증 실험 개시	13

- 규슈·오키나와 기업체감경기 4개월 연속 악화 13
- 시즈오카 현 중소기업 57%만 정규직 채용 계획 14
- 가나가와 현·요코하마 시, 트럼프 관세 대응 지원 강화 14
- 중부지방 GW 관광 호조...혼잡 완화 신기술 도입 15
- 시즈오카 현, '관광 입현' 전략 가속...수요 분산책 모색 15
- 시코쿠 지역 기업 도산 22건, 전년同月比 100% 급증 16

■ 태국

- 태국-인도네시아, 고위급 회담 통한 무역 투자 증진 및 경제 협력 강화 합의 16
- 방콕, 외국인 거주자 친화 도시 세계 6위 선정 쾌거 17
- 태국 관광업계, 주요 시장인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깊은 우려 표명 17
- 태국 관광청, 미쉐린 가이드와 협력 강화로 음식 관광 허브 도약 추진 18
- 미중 무역 갈등 상황 속 태국, 반려동물 사료 및 쌀 등 대미 수출 확대 전략 추진 18

■ 캄보디아

-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캄보디아 경상수지 흑자 전환 긍정 전망 19
- 캄보디아-베트남, 공동 무역위원회 설립 통해 양국 교역액 200억 달러 목표 설정 19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일본, 인공지능(AI) 및 자동차 산업 중심 경제 협력 확대 추진 합의 20

■ 베트남

- 베트남, 미국의 관세 위협 속 일본과 양자 무역 확대 통해 경제 안정 모색 20
- 베트남 고무기업들, 캄보디아 캄퐁툼 주에 약 1만 개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여 .. 21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 인민은행, 시장 안정 및 기대 관리 강화 위한 경제 성장 지원책으로 기준을 0.5%p 인하(1조 위안 공급), 정책금리 0.1%p 및 개인 주택공적 금리 0.25%p 하향, 과학기술 혁신 채용자 증액 및 서비스 소비·양로 채용자 신설 등 10개 조치 발표
- ✓ 중국 25개 주요 도시, 2025년 전 4개월간 주택용지 평균 지가(m²당 13,003위안, 전년비 54% 급등) 사상 최고치 기록 및 평균 낙찰률 19%(2018년 이래 최고)로 개발사 투자 심리 개선 명확히 분석
- ✓ 닝샤 후이족 자치구, 인환 종합보세구의 고수준 개방·발전 지원 위해 보세 가공·물류 등 신규 업태 육성, 지정 감독장치 설치 및 철도 전용선 건설, 국제 항공노선 증설 등 물류 인프라 강화 포함 23개 조치 발표
- ✓ 2025년 4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 51.1%로 확장 국면 유지, 주요 분항 지수 50% 이상으로 공급망 회복세 지속 가운데 서부 지역 업무 총량 지수 2.3%p 상승 등 회복세와 동·중부 지역 하락의 지역별 차이 발생
- ✓ 제28차 ASEAN+3 재무·중앙은행 총회, 글로벌·지역 거시경제 현안과 금융 협력 강화 논의 및 중국의 AMRO 대상 400만 달러 추가 기부를 통한 회원국 거시경제 감시·금융 안정화 역량 강화 지원 계획 발표
- ✓ 사이디 컨설팅 '2025 중국 컴퓨팅 파크 경쟁력 연구' 보고서, 서부 지역 순위와 TOP 20 중 15개 허브 위치(국가급 75%)로 정책·산업 기반 중요성 확인 및 감숙 칭양 '동수서산' 산업단지(5만P 돌파)의 1위 기록
- ✓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세 정책 변화로 어려움 겪는 수출 기업 내수 시장 전환 지원 가속화, 징동의 2천억 위안 구매 계획 및 타오바오

'수출 정품' 프로젝트 등 종합 마케팅 솔루션 제공 확대

- ✓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란젠항톈, 자체 개발 액체메탄 로켓 엔진 '천작' 100기 생산 완료로 중국 최초 양산 체계 구축 및 100톤급 추력 기반 저비용·고빈도 발사 위한 재사용 로켓 핵심 기술 발전 기여
- ✓ 2024년 중국 에너지 산업, 원유 생산 증가 및 천연가스 6.2% 성장 등 공급 안정성 강화와 태양광(신규 2.78억kW)·풍력(누적 5.2억kW) 세계 1위 기반 청정 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 발전 지속 추진
- ✓ 2025년 1분기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매출액 3조1479억 위안(10.6% 성장) 및 수출액 131억 달러(2.4% 증가)로 회복, 특히 클라우드·빅데이터 및 반도체 설계 등 정보기술 서비스 분야의 성장 주도

○ 일본

- ✓ 일본, 2025년 3월 교토 호텔 일본인 숙박 16.1% 감소 등 주요 관광지 '일본인 기피 현상' 심화, 코로나 이전 대비 40% 급등한 숙박료 및 전반적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 일본 주요 관광지, 오버투어리즘 대응 본격화로 야마가타 긴잔 온천의 당일 관광객 차량 통제 및 예약제 운영, 히메지성의 시민·비시민 차등 요금제(2026년 3월~) 도입 등 혁신 조치 시행
- ✓ 간사이 전력, 오사카 다나가와 화력발전소 부지에 2027년 완공 목표, 일반 가구 4.6만 세대 하루 사용량인 40만kWh급 국내 최대 배터리 저장소 건설, 재생에너지 과잉 생산 및 신규 수요 대비
- ✓ 도쿄 가스, 오타 구 수재생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부터 하수 슬러지 CO₂ 와 재생에너지 수소 결합 e-메탄(일 12m³) 생산 실증 실험 개시, 2030년까지 도시가스 공급량 1% 전환 목표

- ✓ 2025년 4월 규슈·오키나와 기업체감경기지수(DI) 44.8로 4개월 연속 악화, 원자재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매·도매업(39.5) 및 건축비 증가 영향받은 부동산(45.3) 업종의 특히 심한 둔화
- ✓ 2025년도 시즈오카 현 기업 정규직 채용 계획 비율, 전년비 3.2%p 감소한 57%로 3년 연속 하락, 대기업(78.7%)과 중소기업(53.4%, 소기업 30.3%) 간 격차 심화로 고용 심리 위축 반영
- ✓ 가나가와 현·요코하마 시, 美 자동차 부품 25% 추가 관세 영향 중소기업 대상 특별응자 확대 발표, 현 최대 8천만 엔(연 1.3% 이내) 용자 및 보증료 50% 지원, 시 보증료 지원율 0.6%로 상향
- ✓ 2025년 골든위크 중부지방 관광 호조, 중부국제공항 이용객 22% 및 JR 도카이 신칸센 5% 증가 기록, 나고야성 '키즈 패스트 트랙'과 시라카와고 비수기 방문 권장 등 혼잡 완화책 도입
- ✓ 시즈오카 현, GW 하마마츠 축제 249만 명 방문(역대 2위) 등 '관광 입현' 전략 가속, 일본평동물원 주차장 완전 예약제 및 미시마 스카이워크 동적 가격제 등 관광객 수요 분산책 적극 모색
- ✓ 2025년 4월 시코쿠 4개 현 기업 도산(부채 천만 엔 이상), 전년비 100% 급증한 22건(10년래 최대) 기록, 매출 부진 원인으로 가가와·도쿠시마의 건설업·제조업 중심 발생

○ 태국

- ✓ 태국-인도네시아, 고위급 회담서 2024년 약 182억 달러 양자 무역 확대와 의료·신재생에너지 등 태국 투자 증진, 농산물 무역 장벽 해소 및 美 관세 공동 대응 등 경제 협력 강화 합의
- ✓ 태국 방콕, 인터네이션스닷오알지 발표 2024년 세계 외국인 거주자 친화

도시 6위 기록, 외국인 개방성, 현지인 친밀도, 지원 네트워크 접근성 및 사회생활 만족도 등의 종합적 우수 평가

- ✓ 태국 관광업계, 핵심 시장인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관광 시장 부정적 영향 심히 우려, 주변국 경쟁 심화 속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과 관광청(TAT)의 적극적 시장 방어 노력 촉구
- ✓ 태국 관광청(TAT), 미쉐린 가이드와 협력 강화로 세계적 음식 관광 허브 도약 추진,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2018년 98개에서 2025년 462개로 대폭 증가 및 유네스코 미식도시 선정 등 성과
- ✓ 태국, 미중 무역 갈등 속 美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기회로 반려동물 사료·쌀·가공식품 대미 수출 확대 및 품목 다변화·품질 경쟁력 강화로 시장 점유율 제고, 美 관세 예고에는 원산지 증명 등으로 대응

○ 캄보디아

- ✓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캄보디아 경상수지가 GDP 대비 2.3% 흑자로 전환, 2024년 1.7% 적자에서 개선되어 아세안 4위 수준 기록 및 2017년 이후 지속된 적자 상황에서의 주목할 만한 경제 개선 전망
- ✓ 캄보디아-베트남, 하노이에서 공동 무역위원회 설립 합의, 2025-26년 협력 체계 구축과 FTA·RCEP 이행 강조로 양국 교역액 78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확대 및 인프라 개선 공동 추진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일본, 인공지능(AI)·자동차 산업 중심 경제 협력 확대 추진 합의, 전문지식·자원 공유로 성장·혁신 도모 및 글로벌 경제 과제 해결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 중요성 재확인

○ 베트남

- ✓ 베트남-일본 총리, 하노이 회담서 미국의 對베트남 46% 관세 예고 등 관세 위협 속 양자 무역 관계 강화 및 법치 기반 국제 질서 유지 등 글로벌 무역 규범 수호 통한 경제 안정 공동 모색
- ✓ 베트남 고무기업들, 캄보디아 캄퐁툼 주에 17년간 약 1만 명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복지 사업(태양광 가로등 기부 등)으로 지역 경제 발전 기여,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위한 지속적 논의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중국 인민은행, 시장 안정화 위해 3대류 10개 조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 안정과 기대 관리 강화를 목표로 3개 분야 10개 정책 조치를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율 0.5%p 인하(1조 위안 유동성 공급), 정책금리 0.1%p 하향 조정,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 금리 0.25%p 인하 등이 포함되며, 이는 경제 성장 지원과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패키지 - 특히 주목할 만한 조치로 개인 주택공적금리 0.25%p 인하(5년 이상 첫째집 대출금리 2.6%로 조정), 3000억 위안 규모 과학기술 혁신 채용자 한도 증액, 5000억 위안 '서비스 소비 및 양로 채용자' 신설 등이 포함되어 소비 진작과 산업 지원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 -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거시경제 안정과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적절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재정정책과의 협력을 강화해 경제 회복을 지원할 방침 <p>○ 중국 25개 도시 주택용지 가격 사상 최고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전 4개월간 중국 25개 주요 도시 주택용지 평균 지가가 m²당 13,003위안으로 전년 대비 5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300개 도시 기준으로도 m²당 5,023위안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해 토지 시장이 활황 국면을 보임 - 지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토지 낙찰률 급등이 지목됨. 25개 도시 평균 낙찰률이 19%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이는 코로나 이후 평균 5-10% 대비 크게 높은 수치로 개발사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 - 전문가들은 우수 입지 조건의 토지 공급 증가, 최근 7개월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신규분양 시장 호조로 인한 개발사 현금흐름 개선, 고품질 주택 건설 정책 등이 토지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 특히 1분기 1선 도시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 등 신규분양 시장도 호조세를 보임</p>
	<p>○ 닝샤, 인촨 종합보세구 고수준 개방 지원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닝샤 후이족 자치구가 인촨 종합보세구의 고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6개 분야 23개 세부 조치를 담은 지원 정책 발표. 보세 가공·물류·리스 등 신규 업태 육성과 지정 감독장치(식육·과일·곡물 등) 설치를 추진할 계획 - 인촨 보세구는 2023년 해관총서 평가에서 서부 및 동북 지역 'B등급'으로 격상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새 정책을 통해 항구 산업단지 철도 전용선 건설, 국제 항공노선 증설, 텐진항 등과의 해상(국경) 통로 확보 등 물류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방침 - 재정·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매년 전용 자금을 배정하고 산업 유도 기금을 강화하며, 전기요금·물류비용 인하, 용지 공급 보장 등 요소 지원을 통해 발전 활력을 제고할 예정. 또한 신장·텐진 등 연해·변방 항구와의 교차 지역 협력 메커니즘 구축으로 외향형 경제 발전을 촉진할 계획
	<p>○ 4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 51.1%, 서부 지역 회복 두드러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4월 중국 물류업 경기지수는 51.1%로 전월 대비 0.4%p 하락했으나 여전히 확장 국면 유지. 업무 총량 지수·신규 주문 지수·재고 회전율 지수 등 주요 분항 지수가 모두 50% 이상을 기록하며 공급망 상하류 연동 회복세가 지속 - 지역별로는 서부 지역이 업무 총량 지수 2.3%p 상승하며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인 반면, 동부·중부 지역은 각각 1.2%p·0.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 국	<p>5%p 하락. 이는 대중 상품 수급 둔화와 국제무역 '선수출' 효과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업계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확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별·품목별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 특히 서부 지역의 성장 동력이 주목받으며, 향후 물류 산업의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
	<p>○ 제28차 ASEAN+3 재무·중앙은행 총회 개최, 중국 400만 달러 추가 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8차 ASEAN+3(한중일) 재무·중앙은행 총회에서 글로벌·지역 거시경제 현안과 금융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중국 재정부 장관 란포안은 회의 공동의장으로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견지, 거시정책 조율 강조 - 중국은 10+3 거시경제 연구사무소(AMRO)에 400만 달러 추가 기부를 발표하며 지역 회원국의 거시경제 감시 및 금융 안정화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설 계획. 이번 기부는 지역 금융 안전망 공고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 - 회의 전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10+3 재무장관 비공개 교류회도 개최되어 인구 고령화 대응 등 정책 경험 공유. 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 강조하며 국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지역의 안정성 제고를 촉구
	<p>○ 중국 산업연구원, 2025년 중국 컴퓨팅 단지 경쟁력 보고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디 컨설팅이 발표한 '2025 중국 컴퓨팅 단지 경쟁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서부 지역 컴퓨팅 단지의 종합 능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TOP 20 중 15개가 허브 지역에 위치하며, 특히 국가급 산업단지가 75%를 차지해 정책 지원과 산업 기반의 중요성이 확인 - 경쟁력 1위는 컴퓨팅 규모 5만P(페타플롭스)를 돌파한 감숙(간쑤) 칭양 '동수서산' 산업단지로, 녹색 전력 활용률 제고를 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 국	<p>한 '그린 전력 집계' 프로젝트 추진 등 혁신적인 운영으로 두각을 나타냄. 닝샤(寧夏) 중위·귀안 신구 등이 그 뒤를 이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는 향후 컴퓨팅 파크 발전 트렌드로 허브 집중과 다점 분포 병행, 컴퓨팅-네트워크-전력 융합 가속화, 정교한 서비스 확대, 친환경화 관심 증대 등을 전망.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 컴퓨팅 인프라의 전략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
	<p>○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기업 내수 시장 진출 지원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의 내수 시장 전환을 적극 지원. 징둥(京东)은 2000억 위안 규모의 수출 전환 제품 구매 계획을 발표하며, 타오바오·티몰은 1만개 기업·10만개 상품 대상 '수출 정품' 프로젝트 추진 - 주하이 진다오 전기는 미국 관세 영향으로 10만 대 제품 재고가 발생하자 징둥의 긴급 지원으로 1만 여개 제품을 단기간 내 판매 채널 확보. 제품 설명서 현지화·라이브 커머스·검색 노출 지원 등 종합적인 마케팅 솔루션 제공이 성공 요인으로 분석 - 알리바바 그룹은 100개 외貿 산업 클러스터 현장 지원에 나서고, 헤마(盒马)는 24시간 입점 신속 채널 개설. 핀뉘뉘(拼多多)도 중소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1000억 위안 해상 계획' 발표하며 플랫폼 간 경쟁적 지원 확대. 이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국의 안정적 외貿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
	<p>○ 중국 민간 우주기업, 액체메탄 엔진 100기 생산 돌파, 재사용 로켓 기술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란젠항톈(蓝箭航天)이 자체 개발한 액체메탄 로켓 엔진 100기 생산을 완료하며 상업용 우주 산업의 규모화 가능성 입증. 이는 단일 모델 개발에서 벗어나 양산 체계를 구축한 중국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으며, 저비용·고빈도 발사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시대를 앞당길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란젠항텐은 2023년 7월 주작(朱雀) 2호 로켓 발사 성공으로 세계 최초의 궤도 진입 액체메탄 엔진 개발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음. 현재 '천작(天鹊)' 시리즈 엔진은 최대 100톤 급 추력과 광범위한 조절 기능을 갖춰 재사용 로켓의 핵심 동력원으로 자리매김 - 저장(浙江) 후저우(湖州)시의 산업 정책 지원 아래 구축된 동력 제조 기지는 40여개 항공우주 산업 체인 기업과 협력 체계를 형성하며 지역 경제와의 시너지 창출. 이는 중국 민간 우주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방 정부의 전략적 투자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
중국	<p>○ 중국 에너지 산업, 저탄소 발전 지속 추진, 신에너지 비중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중국 석유·가스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원유 생산량은 증가·수입량 감소하는 등 공급 안정성 강화. 특히 천연가스 생산은 2463.7억㎥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며 8년 연속 100억㎥ 이상 성장 지속 - 신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은 태양광·풍력 누적 설치량에서 세계 1위 위치 공고히 하며 청정 에너지 전환 가속화. 2024년 중국 태양광 신규 설치량 2.78억kW, 풍력 누적 설치량 5.2억kW로 전 세계 설치량의 각각 4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압도적 시장 점유율 보유 - 전문가들은 2025년 수소에너지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며 글로벌 시장 규모 3000억 달러 돌파 전망. 중국도 CCS/CCUS 기술 투자 확대와 에너지 효율 재료 혁신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짐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중국 소프트웨어 업계 매출 10.6% 성장, 수출도 증가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분기 중국 소프트웨어 산업 매출액은 3조147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며 안정적 성장세 지속. 특히 소프트웨어 수출은 131억 달러로 2.4% 증가하며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임 - 세부 분야별로는 클라우드·빅데이터 서비스(3540억 위안, +11.1%), 반도체 설계(906억 위안, +19.7%) 등 정보기술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66.1%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 정보 보안 분야도 481억 위안 매출로 8.6% 성장하며 사이버 보안 수요 증가 반영 - 지역별로는 중부 지역이 11.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지역(11.8%)과 장강 삼각주(10.4%) 등 주요 경제권이 균형 잡힌 발전 모습을 보임. 이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로 분석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 국내 관광지 기피 현상 심화·교토 등지서 두드러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3월 기준 교토시 내 호텔 일본인 숙박 수가 전년 대비 16.1% 감소한 약 30만 박 기록. 금각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29% 증가한 반면 일본인 관광객은 19% 감소하는 등 주요 관광지에서 '일본인 기피 현상' 뚜렷. 물가 상승과 숙박비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3월 일본인 숙박객 수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4,192만 명으로 11개월 연속 감소세. 총무소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숙박료가 코로나19 이전(2019년) 대비 40% 가까이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10%)을 크게 상회 - 골든위크 기간(4.25~5.7) 국내 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 7.2% 감소한 2,290만 명 예상. 반면 해외 여행객은 10% 증가한 55만 명 기록하며 양극화 현상 나타남. 홋카이도 지역의 경우 현지 거주자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 감소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오버투어리즘 대응 본격화...일본 관광지지의 새로운 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 대응을 위해 일본 주요 관광지들이 혁신적 조치 시행. 야마가타 현 긴잔 온천은 2024년 12월~2025년 2월까지 당일치기 관광객 차량 통제하며 예약제 셔틀버스 운영. 시간당 150명 정원제 도입으로 혼잡 완화 - 히메지성(兵庫縣)은 2026년 3월부터 시민과 비시민 차별화 입장료 제도("이중 가격제") 도입 예정. 교토시는 2024년 11월 기준 중심가 외곽 지역(京北·山科·西京) 일본인 방문객 수 증가세에 따라 관광객 분산 정책 강화 -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연간 6,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수용력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필수"라고 강조.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해외 사례 벤치마킹 움직임 확대
	<p>○ 간사이 전력, 재생에너지 저장용 초대형 배터리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이 전력이 오사카 부 다나가와 화력발전소 부지에 2027년 완공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40만kWh) 배터리 저장소 건설. 일반 가구 46,000세대 1일 사용량 상당 전력 저장 가능하며 총 사업비 수백억 엔 규모 예상 - 2023년 이후 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출력 제어' 사례 증가(큐슈·간사이 지역 등) 배경. KDDI가 오사카 부 사카이시에 건립 중인 AI 데이터센터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송전망 연결 배터리 용량 17만kW에서 2030년 50배(약 850만kW) 규모로 확대 전망. 화력발전소 부지 재활용 추세 확대될 듯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도쿄 가스, 하수 슬러지 활용 e-메탄 실증 실험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 가스가 2026년 상반기부터 오타 구(大田区) 모리가스키 수재생센터에서 하수 처리 과정 발생 CO₂ 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 결합해 e-메탄 생산 실증 실험. 도쿄 도가 최대 3억 엔(약 270억 원) 지원 - 이 기술은 하수 슬러지 처리 시 배출되는 CO₂ 를 재활용하므로 탄소 배출 제로(Net Zero) 인정받음. 2022년 요코하마 시에서 시작한 실험 확대판으로, 2030년까지 가스 공급량 1%를 e-메탄으로 전환 목표 - IHI 제조 메탄화 장치 도입하며 1일 생산량 12m³ 규모. 일본 환경성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시 가스 탈탄소화 핵심 기술”로 평가
	<p>○ 규슈·오키나와 기업체감경기 4개월 연속 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4월 제국데이터뱅크 조사에서 규슈·오키나와 지역 기업체감경기지수(DI) 44.8 기록(전월比 0.9p 하락). 소매·도매업(39.5)과 부동산(45.3) 업종에서 특히 둔화 두드러져 -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구매심리 위축이 주된 요인. 부동산 업계는 “건축비 증가로 분양가 상승하며 매출 부진”이라고 토로. 3개월·6개월·1년 후 전망치 모두 하향 조정 -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격전가 지원 제도 강화 필요” 지적. 특히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및 외국인 노동 규제 완화 등 구조적 개선 요구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시즈오카 현 중소기업 57%만 정규직 채용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시즈오카 현 내 기업 정규직 채용 계획 비율 57%(전년 대비 3.2p↓)로 3년 연속 감소. 대기업(78.7%)과 중소기업(53.4%) 간 격차 뚜렷하며 소기업은 30.3%에 그쳐 -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76.2%)이 최고, 건설업(71.1%)과 제조업(63.7%) 순. 2024년 문제(트럭 운전자 과로사 규제) 영향으로 운수업계 인력 수요 급증 - 현 당국은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와 보조금 제도 확충 필요” 강조.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채용 위축을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 시급”이라고 언급
	<p>○ 가나가와 현·요코하마 시, 트럼프 관세 대응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5월 12일부터 자동차 부품 25% 추가 관세 영향 받는 중소기업 대상 특별융자 확대. 가나가와 현은 최대 8,000만 엔(연리 1.3% 이내) 융자 한도에 신용보증료 50% 지원 - 요코하마 시는 '경영지원자금' 한도를 기존 2억 8,000만 엔 유지하되 보증료 지원을 0.2%→0.6%로 상향. 현 내 자동차 관련 기업 1,200여 개 사업장 피해 최소화 목표 - 4월 4일 개설한 특별상담창구에는 5월 7일까지 현 4건, 시 3건 접수. 현 경제진흥국 관계자는 “관세 장기화 시 대미 수출 다변화 전략 컨설팅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중부지방 GW 관광 호조...혼잡 완화 신기술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골든위크 기간 중부국제공항 이용객 22% 증가(ANA·JAL 국내선 평균 탑승률 82%). JR 도카이 도카이도 신칸센 이용객 5% 증가하며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실적 기록 - 시라카와고(白川郷)는 관광객 분산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비수기 방문 권장” 알림 게시. 나고야성은 자녀 동반 가족 대상 '키즈 패스트 트랙' 운영해 일반 대기열(90분) 대비 30분으로 단축 - 호텔업계는 “단체 관광객 감소했으나 1인당 숙박비 상승으로 매출 증가” 보고. 반다 선(武豊線) 3개 역에서는 지방주류 판매 이벤트 성공적으로 진행
	<p>○ 시즈오카 현, '관광 입현' 전략 가속...수요 분산책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GW 후반(5.3~6) 하마마츠 축제 249만 명 방문으로 역대 2위 기록. 에반게리온 연계 관광으로 도외 관광객 30~40% 유치 성공 - 일본평동물원(静岡市) 최초로 주차장 완전 예약제 도입. 하루 평균 방문객 30~40% 감소했으나 교통 체증 개선 효과. 미시마 스카이워크는 동적 가격제(조조 할인) 적용해 전체 관광객의 30% 조조 시간대 유도 - 후지 드림 에어라인즈(FDA)는 국내선 수요 증가로 GW 기간 탑승률 90% 기록. 관광연구소는 “현 내 숙박객 증가율 정체 돌파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재검토 필요” 지적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시코쿠 지역 기업 도산 22건…전년同月比 100% 급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4월 시코쿠 4개 현 기업 도산 건수 22건(부채 1,000만 엔 이상)으로 지난 10년 동월 최다. 전년 대비 100% 증가하며 가가와(8건)·도쿠시마(8건)에서 집중 발생 - 업종별 건설업(7건)과 제조업(5건) 가장 많았으며, 원인별로는 매출 부진(15건)이 68% 차지. 도쿄상공리서치는 “대기업 호황이 중소기업까지 미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 고착화” 진단 -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 “원가 상승에 대응한 근본적 사업 재편과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 없을 경우 도산 증가세 지속될 것” 경고. 특히 건설업체의 2024년 문제(인건비 급등) 후폭풍 우려
태국	<p>○ 태국-인도네시아, 고위급 회담 통한 무역 투자 증진 및 경제 협력 강화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아세안무역대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양국 무역 및 투자 증진을 논의함. 2024년 약 182억 달러의 양자 무역 확대와 태국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촉진 방안 협의. 4월 말 방문은 양국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 계기로 평가 - 판데이 대표는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차관 등과 만나 현지 개발 프로젝트에 태국의 참여 기회를 모색함. 의료, 제약,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이 주요 투자 분야로 선정. 통상부와는 농산물 중심 무역 확대 및 무역장벽 해소에 합의 도출 - 아세안 상품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 관세 부과 영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합의. 판데이 대표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와 기업 간 매칭 이니셔티브 추진 동의. 이는 대외 경제 도전에 대한 양국의 선제적 공조 의지 시사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p>○ 방콕, 외국인 거주자 친화 도시 세계 6위 선정 쾌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방콕이 인터네이션스닷오알지 발표 2024년 세계 외국인 거주자 친화도시 6위 기록. 조사는 외국인 개방성, 현지인 친밀도, 지원 네트워크 접근성, 사회생활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순위 산정. 이는 방콕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 - 2024년 외국인 친화 도시 1위는 스페인 말라가, 2위 멕시코시티, 3위 스페인 알리칸테 순. 스페인 발렌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가 각각 4, 5위를 차지. 여러 국가 도시들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다양한 환경 제시 - 방콕 거주 외국인들은 도시의 개방적 분위기와 다양한 사교 기회를 매력 요소로 평가. 이는 방콕이 단순 거주지를 넘어 활발한 사회생활이 가능한 도시로 인식됨을 시사하며, 국제 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p>○ 태국 관광업계, 주요 시장인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깊은 우려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관광체육부 사무차관, 최근 중국인 관광객 급감에 깊은 우려 표명. 관광산업은 태국 핵심 경제 동력이며, 중국인 관광객은 유입 비중이 커 이번 감소세는 관광 시장에 부정적 영향 전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최근 일본, 베트남 등이 자국 관광 홍보를 강화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됨. 이러한 상황은 태국을 포함한 국가들 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으며, 태국 관광 시장의 주요 도전 과제로 부상 - 태국 관광청(TAT)은 수교 50주년 기념 '사왓디 니하오' 캠페인 등 중국 시장 모멘텀 유지 노력. 중국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 전략은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접근의 일환으로, 그 성과에 귀추 주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p>○ 태국 관광청, 미쉐린 가이드와 협력 강화로 음식 관광 허브 도약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관광청(TAT)이 미쉐린 가이드와 협력 포럼을 개최, 태국을 세계적 음식 관광지로 홍보 강화. 그 결과 태국 내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은 2018년 98개에서 2025년 462개로 대폭 증가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 기록 - 미쉐린 가이드는 태국 음식관광 활성화에 핵심 역할 수행. 해외 관광객 음식 관련 수입 4,000억 바트(약 17조 원) 달성 목표에 기여하며 태국 음식 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관련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극대화 - 방콕이 타임아웃 매거진 선정 세계 최고 음식 도시 2위 기록 등 태국 음식관광 부문은 국제적 인정 획득.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푸켓과 펫차부리를 '미식도시'로 선정. 지속 가능한 음식 관광지 성장 목표 <p>○ 미중 무역 갈등 상황 속 태국, 반려동물 사료 및 쌀 등 대미 수출 확대 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미중 무역 갈등 속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를 기회로 반려동물 사료, 쌀, 가공식품의 대미 수출 확대 계획. 현재 주요 공급국인 태국은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점유율 추가 확대 방침. 품목 다변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에 집중 - 미국이 태국에 36% 관세 예고 시 시장 점유율 유지에 어려움 전망. 태국 정부는 불확실성 대응 위해 원산지 증명 강화 및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 등 단기·장기 대책 시행 중.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노력 -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 전쟁 영향으로 2025년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미국과 관세 인하 협상 추진 중이며, 중국산 농산물 유입 증가에도 대비하며 경제 안정화 노력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캄보디아 경상수지 흑자 전환 긍정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통화기금(IMF), 2025년 캄보디아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흑자 기록 전망. 이는 2024년 약 1.7% 적자에서 전환되는 것으로, 2017년 이후 지속된 적자 상황에서의 주목할 만한 경제 개선 평가 - 캄보디아의 예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아세안 국가 중 4위 수준. 싱가포르(17.2%), 브루나이(15.4%), 베트남(3.2%) 다음이며,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흑자 예상. 필리핀은 적자 전망으로 국가별 편차 존재 - 국제통화기금은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 전망. 2024년 상품 무역 증가와 무역 불균형으로 확대되었으나, 중기적으로 영향 감소 예상. 이는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 안정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베트남, 공동 무역위원회 설립 통해 양국 교역액 200억 달러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베트남 총리, 하노이에서 양국 공동 무역위원회 설립 합의. 2024년 약 78억 달러였던 무역액을 2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방안 논의.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 양국은 200억 달러 무역액 목표 달성을 위해 2025-2026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 무역위원회 설립 합의. 아세안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협력 체계 이행 중요성도 함께 강조 - 캄보디아는 쌀, 캐슈너트 등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건설자재, 기계 등을 수입. 관광 및 무역 증진 위해 프놈펜-베트남 국경 연결 고속도로 건설 추진 중. 인프라 개선을 통한 교류 확대에 양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일본, 인공지능(AD) 및 자동차 산업 중심 경제 협력 확대 추진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일본 경제산업성 부대신,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인공지능(AD) 및 자동차 산업 협력 기회 모색과 글로벌 경제 과제 해결 방안 중점 논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시너지 창출 기대 - 양국은 글로벌 경제 과제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해결 위해 양국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 전문지식 및 자원 공유를 통한 성장과 혁신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교환. 상호 경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의지 표명 - 양국은 주요 산업 분야 혁신 주도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이번 회담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포괄적 협력 강화 의지를 시사. 안정적 경제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
베트남	<p>○ 베트남, 미국의 관세 위협 속 일본과 양자 무역 확대 통해 경제 안정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팜 밉 쩡 베트남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하노이에서 양자 무역 관계 강화 및 글로벌 무역 규범 수호 방안 논의. 최근 양국은 미국과의 관세 문제 협상 추진 중으로, 이번 회담은 국제적 관심 집중 - 미국은 지난 4월 초 베트남에 46%, 일본에 24% 관세 부과 예고 후 7월까지 유예. 그러나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는 여전히 적용되어, 관련국들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되는 상황. 추가 협상 결과가 주목 - 이시바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법치 기반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 유지 중요성 강조. 이번 하노이 회담은 최근 동아시아 고위급 외교 행보의 일환으로 평가. 역내 경제 안정 및 협력 강화 모색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p>○ 베트남 고무기업들, 캄보디아 캄퐁툼 주에 약 1만 개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고무기업들, 캄보디아 캄퐁툼 주에서 약 1만 명의 현지 근로자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 주캄보디아 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기업들이 지난 17년간 현지 프로젝트와 경제 발전에 공헌했다고 강조 - 부 대사는 캄퐁툼 주 정부와 베트남 기업들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및 투자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경제협력 핵심 분야로 베트남고무그룹(VRG) 산하 기업들의 투자, 생산, 사업 운영 등을 지목하고 상호 발전 모색 - 베트남 기업들은 세금 납부 의무 이행 및 캄퐁툼 주에 태양광 가로등 500개 기부 등 사회복지 사업 참여. 누온 파라트 캄퐁툼 주지사는 베트남 투자자들의 기여를 긍정 평가하며 향후 더 많은 투자 유치 희망 표명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